

# ‘치매돌봄’ 전문 요양마을·치유농장 조성돼야

시민행복발전소, 정책토론회

환자 수 증가...간병부담 가족 집중  
선진국 벤치마킹 ‘전문 단지’ 필요

광주·전남지역에 치매돌봄을 위해 치매요양행복마을과 치유농장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협조시설로 인식된 치매요양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시민단체인 시민행복발전소 주최로 최근 광주시청에서 열린 ‘치매요양행복마을과 치매돌봄치유농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박상하 사회경제연구원장은 발제문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와 간병 부담은 가족에게 집중돼 있다”면서 “광주·전남에도 네덜란드 호그벡마을 같은 관광단지 조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전남 지역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2015년 5만 5919명에서 2023년 8만 171명까지 매년 증가했다. 치매 유병률 역시 9.7%에서

11.5%로 늘어났다. 85세 이상의 치매유병률을 따져보면 2023년 기준 38.4%까지 치솟았다.

박 원장은 “전체 노인 인구의 10%, 85세 이상의 30% 내외가 치매를 앓게 되지만, 대부분 치매 요양시설이 일반 노인요양시설과 통합돼 있어 적합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등급별·상태별로 필요한 일상생활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지만 요양보호사 및 치매 전담 인력 확보가 힘든 탓에 치매환자들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신체활동에 제약을 받고, 심지어 학대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박 원장의 분석이다.

2016년 시설 내 노인학대는 238건이었으나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6774건 가운데 생활 시설 내 학대는 536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광주에서 치매에 걸린 90대 부모를 돌보고 있는 김용일(62)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가족이 치매환자를 돌보면서도 일상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3년 전부터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치매에 걸려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광주로 내려왔다. 부모님이 요양원 입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비전문가인 가족이 치매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부모님을 어린 아이로 취급하거나 평범한 습관도 치매 증상으로 오인하는 등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가족마저 일상을 잃고 점차 지쳐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치매환자가 인생 말년을 간혀서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거나 온가족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 등의 선진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008년 조성된 호그벡 마을은 세계 최초의 마을형 치매요양시설로, 한 집에 6-7명의 치매환자가 함께 거주하면서 일상을 누린다는 점이다.

27채의 주택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간병인과 자원봉사자들은 레스토랑 직원, 수리공, 마을 주민 등을 연기하며 자연스럽게 치매환자들을 돌본다.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치매 환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치매환자 가족들과

관객들이 몰리면서 지역 상권까지 활성화됐다. 광주·전남 치매 환자들이 요양시설에 단순 수용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요양시설이 협조시설로 여겨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훈 시민행복발전소 민생경제위원장장은 광주에서 치매요양행복마을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일대에 조성 예정인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 활용을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택지가 개발될 예정인 만큼 일부에 광주도시공사가 전략적으로 치매요양행복마을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전남 상생모델로서 담양, 함평, 나주, 화순 등에 부지를 선정하고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텃밭, 휴양단지와 함께 치매타운을 조성하는 제안도 나왔다.

이혜경 시민행복발전소 소장은 “초고령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매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치매환자도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은둔형외톨이 가족교육’

광주시, 12일부터 5회 진행

광주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광주에 거주하는 은둔형외톨이 가족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은둔형외톨이 가족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는 은둔형외톨이의 특성상 가족이나 주변인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은둔형외톨이 당사자들은 가족에 대한 원망과 미안함이 공존하는 복잡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은둔형외톨이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개입 방안’을 주제로 오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오오쿠사 미노루 은둔청년지원 활동가가 ‘은둔형외톨이 이해 및 부모 역할’을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한다. 나기희 조선대 원스톱학생상담센터 교수의 ‘은둔형외톨이 마음건강 이해하기’ 강의 등이 뒤를 잇는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자조모임을 구성해 상호 소통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만남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둔가족을 둔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15명 이내다.

백희정 광주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이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이해와 개입방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일상이 무너진 가족들에게도 회복과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

## 일상육아 ‘아빠 힐링캠프’

12일 운암복합문화센터

광주시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아빠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아빠 힐링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2일 오후 1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아빠가 함께하는 일상의 즐거움을 통해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을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아버지로서 육아 경험이 있는 유튜브 이자 정진과 전문의 정우열 박사가 ‘일상의 육아 고민과 아빠 육아의 중요성’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동화회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키 성장 요가’ 및 ‘마카롱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되고 가족동화회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나눠줄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가족은 ‘광주아이키움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경태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아빠 힐링캠프를 통해서 아빠와 가족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성평등 양육 가치관 확산 및 아빠 육아 참여의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국립공원공단, 가을 성수기 불법 금지행위 집중단속

11월17일까지 불법 출입·흡연 등

국립공원공단이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불법 금지행위를 집중단속한다.

1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1월 17일까지 가을 성수기 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셋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흡주행위 등이다.

공단은 이번 집중 단속에 총 3863명을 투입한다. 무등산은 352명, 지리산은 444명, 월출산은 123명의 단속 인원이 투입된다.

국립공원 내 셋길 출입시 10만원, 야영 및 출입 금지 위반시 최대 50만원, 흡연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내걸고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다음달 11~14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청년포럼’

국립공원공단, 14일까지 참가자 모집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4일까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청년포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포럼은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완도 생물권 보전지역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일원에서 3박 4일간 열린다.

완도 생물권 보전지역은 뛰어난 육상·해상 생태계와 풍부한 생물다양성, 천연 자원을 비롯해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사회·문화적 시스템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국내 9번째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유네스코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생물권 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3대 지정지역은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완도 생물권 보전지역 현장 답사, 해양 치유 프로그램 체험, 조별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교류 등 네트워크 활동이 이뤄진다. 참가 기념품과 참가 인증서가 발급되며 교통비와 숙식도 제공된다.

생물권 보전지역에 관심있는 만 18세~35세의 청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링크(https://linktr.ee/youthmab)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광주 가이저피어스필드 정문과 후문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 KIA,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으로 1등을

광주환경단체, 챔스필드서 캠페인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KIA타이거즈가 경기장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KIA타이거즈 홈경기 가 있던 지난달 24-25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주 가이저피어스필드 정문과 후문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단체는 지난해 8월 가이저피어스필드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결과 7번의 홈 경기에서 일회용품 2만 1858개, 비닐봉지 8618개, 빨대 5816개, 용원봉 75개가 버려졌다는 점에서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

KIA타이거즈의 홈 구장인 가이저피어스필드

에서는 관중수만 큼이나 많은 일회용품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경기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체는 “가이저피어스필드에서 경기 관람을 마치고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려는 시민에게 경기장 관계자들은 편의를 이유로 혼합된 상태로 배출할 것을 안내했으며 분리배출함은 구조물에 가려져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며 “심지어 경기장 대형 카페는 텀블러 사용을 거부하고 경기가 있는 날에는 음료를 모두 일회용 컵에 담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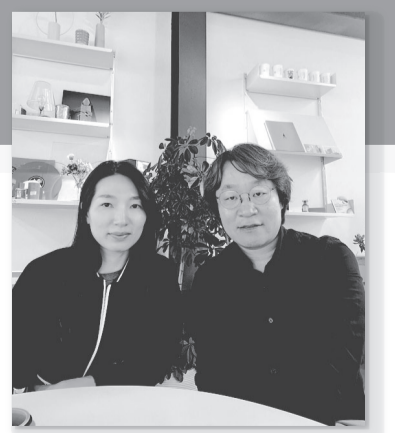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